

백화점 '추석선물 상품전' 개최

신세계, 22일까지 핸드백·잡화 특집 ... '닥스' 'CK' 등 참여
롯데, 26일까지 셔츠·란제리 등 다채 ... '자라' 시즌오프도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가 '추석 선물 대축제'에 나선다. 과일과 건강식품 등 명절 전통적인 선물 외에도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선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어지면서 패션, 잡화,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선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오는 22일까지 '추석 선물 대축제'를 열고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남성 추석 기프트 대전'과 '핸드백&구두&잡화 기프트 특집'을 진행한다.

'남성 추석 기프트 대전'에는 '닥스셔츠', '듀폰셔츠', '레노마셔츠' 등 셔츠 브랜드와 '닥스타이'가 참여해 선물용 셔츠와 넥타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닥스셔츠'의 체크셔츠 6만원~9만 8000원, '레노마셔츠' 3만원~7만 9000원, '듀폰셔츠' 5만 9000원~8만 9000원, '닥스타이' 3만 5000원~6만 9000원 등이다.

'핸드백&구두&잡화 기프트 특집'은 '만다라나락', '닥스', '텐디', '락포트', '소다', '아가타', '루이까포즈', 'CK' 등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품목으로 '텐디'의 숙녀화와 신사화가 각각 8만 9000원과 10만 8000원, '락포

트'의 여성화·남성화가 각 13만 5000원, 13만 8000원에 판매한다. 또 '아가타'와 '루이까포즈'의 스카프는 2만원~6만 9000원, '닥스'와 'CK'의 양말은 1만원~1만 8000원 등이다.

화장품 세트도 2층 각 본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에스티로더'의 'ANROI 컨센트레이트 세트' (샘플3종+파우치 증정)가 20만원에 판매되며, '시슬리'의 '에센스 로션 기획세트' (125ml·스킨 100ml 증정) 24만원, '비디비치'의 '일루미네이션+브이핏 쿠션 세트'를 8만 9000원에 만날 수 있다.

명절 연휴기간 찾아온 손주나 조카를 위한 선물을 위해 아동부에서도 추석 선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품목으로 '헬라키즈'의 로고 맨투맨 티셔츠 4만 9000원, '탈프로렌 칠드런'의 누빔 베스트 16만 9000원, '닥스키즈'의 시그니처 체크 원피스 27만 9000원, 'BEEN'의 원피스 12만 8000원 등이다.

이외 리빙웨어로 '아로마드폼'의 '내추럴 아로마바디 2종 세트' 1만 5000원, 'WMF'의 '구르메 플러스 세트' (20H+스마트스티머20) 15만 8000원, '브루제'의 '티세트' (티팟+차잔4P+받침4P) 9만



광주신세계 '에스티로더' 매장에서 직원이 'ANROI 컨센트레이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는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 행사를 열고 패션, 잡화,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상품 판매에 돌입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9000원, '삼미'의 '유기 사각수 부부수저 2벌'이 3만 9000원에 판매된다. 또 신한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특가로 '네스프레소'의 '버추오 플러스 캡슐머신'을 29만 9000원(신한카드로 전액 결제에 한함·신세계 상품권 3만원 증정)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추석 선물 상품전을 연다.

우선 26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셔츠·란제리 추석 선물 상품전을 열고 듀폰셔츠 3만 9000원, 카운테스마라 넥타이 3만원 등에 선보인다. 여기에 비너스 '브래지어-팬

티세트' 6만 5000원, 비비안 '남성트렁크 2개 세트' 3만원, 트라이엄프 여성팬티 9000원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마련했다.

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나이키·아디다스 대전이 열리며 나이키 후드티 5만 9000원, 남녀 운동화 3만 9000~9만 9000원에 준비돼 있다. 아디다스 트레이닝바지와 운동화도 4만 9000원부터 만나볼 수 있으며, 글로벌 SPA브랜드 자라에서는 20일부터 일부품목에 한해 시즌오프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토마토 가격 한달새 80% 급증

폭염·태풍 영향 물량 부족

최근 한달동안 토마토류 가격이 최대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남 방울토마토(상품·이하 소매 기준)는 1kg당 평균 9870원에 판매됐다.

이는 이보다 1주일 전인 11일 9207원보다는 663원(7.2%) 오른 것이고, 평년 가격인 6688원보다는 3182원(47.6%) 상승한 것이다. 특히 1개월 전 가격인 5411과 비교하면 82.4%나 치솟아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을 확연히 보여줬다. 다만, 1년 전 이맘때 가격인 1만 246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일반 토마토 역시 가격 상승세가 무섭다. 토마토(상품) 1kg은 전남 평균 6058원을 기록해 11일 4913원보다 1145원(23.3%), 평년가격 5099원보다는 959원(18.8%)이 각각 올랐다. 한달 전 3459원보다는 2599원이나 뛰어 7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역시 1년 전 6067원보다는 소폭 떨어졌다.

정부 역시 최근 토마토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유통여 폭염

과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맘때 출하되는 물량에 타격이 컸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폭염이 맹위를 떨쳤고 이달 초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며 "요즘 수확 시기를 맞은 방울토마토와 토마토가 당시 폭염과 태풍을 거치며 수정과 생육이 불량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 등급 간 편차가 심하고 절대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9월 출하되는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주산지인 강원도인데, 이곳에서는 평소 물량의 50~60% 수준으로만 출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전국 각지에서 주로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다른 지역보다 노지 재배 비율이 높아 이번 폭염과 태풍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량이 이뤄질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날씨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만큼 출하 물량이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라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이 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안명수(오른쪽 3번째) 조합장과 광주축협 임직원들이 직영브랜드 상품인 '무등골그린한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축산농협 '무등골그린한우' 판매

품질 좋고 저렴해 인기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무등골그린한우'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축협의 직영브랜드인 '무등골그린한우'는 남도를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로 뛰어난 육질과 맛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입축산물과 달리 가공이 없고 유통과정을 줄여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23일까지 전 상품의 택배배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명절선물을 위한 선물

용 상품을 추가·확대, 온라인 쇼핑물(www.nhhanwoo.co.kr)을 통한 주문 접수에도 돌입했다.

안명수 조합장은 "올해 추석명절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생산된 우리 지역의 명품한우인 '무등골그린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해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농협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서 1등급 이상 한우를 시중보다 최고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축산물 소비촉진에 나서는 등 지역 축산농가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9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광장에서 추석맞이 전남 농특산물 알뜰장터를 개장했다. 21일까지 운영되는 알뜰장터는 전남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을 시중가 보다 최대3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알뜰 장터에서 제수용품 싸게 구매하세요" 21일까지 광주 KT광장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9일 광주시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광장에서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제수를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추석맞이 알뜰장터를 열었다. 올해로 13년째 운영되는 이 알뜰장터는

21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전남 우수 농산물인 장성 사과, 나주 배, 곡성 멜론, 영암 무화과, 광양 밤, 보성 포도, 해남 고구마, 나주 축산물, 진도 견어물 등 70여 품목을 판매한다.

6차산업 농기업을 생산한 건강한 원재

료를 담은 선물세트도 준비돼 있으며, 전남과실 공동 우수브랜드인 '삼콤에' 사과와 무화과도 판매한다. 행사기간 방문한 소비자들은 시식행사와 할인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명절 제수 간편식 매출 40% 증가

올해 추석에도 명절 제수음식으로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명절제수음식 간편가정식 매출은 4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출구성 비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6.3%로 2.9%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가정간편식으로 출시된 제수음식 매출이 신장을 기록하는 것은 최근 명절 트렌드가 변화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로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보다 전과 산적 등 간단한 음식만 준비해 간소화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또 명절 일가 친지가 모두 모이는 것보다 가족끼리 모여 여가를 즐기는 가정이 늘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지역 소비자들은 명절기간 제수음식 간편가정식으로 전류의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3605-5000

